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음 4월 15일) 제20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도 국가예산 부처단계 6조원대

전북도, 6조2954억원으로 전년보다 6417억 증액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주역 전면개선
농촌 유학센터 건립 등
추진사업 부처 반영

전북도는 2019년 국가예산 부처편성 단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6조원대를 확보 달성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가 요구한 7조 6,661억원 가운데 부처에서 반영된 예산은 6조 2,954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부처 반영액 5조 6,537억원에 비해 6,417억원 증액된 규모이다.

부처 반영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사업발굴부터 부처단계에 이르기까지 발빠른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 추진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도는 2019년 국가예산이 본격 시작되는 전년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지침을 마련, 도지사 주재의 3차에 걸친 발굴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사업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했다.

이울러,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문턱이 닿을 정도로 부처 장관, 실국장, 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SOC, 새만금, 성장동력, 농생명, 문화관광, 환경복지 분야 등 전년 부처 대비 비교시 전체적으로 증액반영된 바, 이는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확보된 다수의 신규사업과 전북 자존감 사업이 2019년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관 반영되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틀이 마련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새만금 분야가 전년 대비 1,154억원이 증액되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추진에 대한 정부의지가 부처예산 편성단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각 분야별 부처 반영액은 다음과 같다.

▲SOC분야- 도시재생뉴딜사업(신규, 50억,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신규, 6억), 전주역 전면개선사업(100억), 익산대야 및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720억) 등 9,075억원

▲새만금분야- 새만금 혁신성장지원센터 조성(신규, 30억), 김제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신규, 5억),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272억),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2,320억), 새만금 동서·남북도로(1,317억), 새만금 신항만 건설(386억) 등 8,428억원

▲성장동력분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신규, 1억), 전주 신성장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신규, 52억),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신규, 10억),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혁신타운 조성(신규, 10억), 연가금전문대학원 기본계획수립 컨설팅 용역(신규, 4억) 등 4,364억원

▲농생명분야- 농촌 유학센터 건립(신규, 4억), 완주 로컬푸드 1번지 융복합 산업지구(5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지원(신규, 23억), 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건립(20억) 등 1만1,603억원

▲문화관광분야- 홀로그램콘텐츠서비지원센터(신규, 20억),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신규, 25억),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신규, 2억),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신규, 28억),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신규, 2억) 등 1,563억원

▲환경 복지 안전 복지분야-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신규, 6억), 군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신규, 26억),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지 조성(신규, 6억), 도시바람길숲 조성(신규, 21억), 재해 위험 저수지 등 개보수(신규, 110억),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신규, 3억), 국립 지덕권 산림자유원 조성(43억), 기초연결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7,100억) 등 2조 2,384억원 등이다. /김진성 기자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5.18 민주유공자에 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는 모습.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본회의 상정 무산

여야 이견 커... 후반기 원구성 이뤄진 뒤 논의 재개될 듯

여야가 28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지만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북핵폐기'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구체적 용어를 넣어 비핵화를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합의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진행 중인 이날 오후 4시30분께 민주당 출입기자단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본회의가 끝난 후 정론관 브리핑

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지난 18일 드루킹 특검법안 및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동시 처리를 합의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관련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내 수석들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야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달 13일 지방선거 이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여금·복리후생 수당 등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정의당이 긴급행동 지침을 내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본

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했다.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 기준 30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뉴시스

본사 인사

▲김영태 임:기자 명:편집국 경제부

(5월 29일자)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우리 동네 **관려주세요**

우리 동네 **사랑주세요**

우리 동네 **하주세요**

우리 동네 **상대주세요**

유권자 여러분이 직접 **우리 동네 희망공약**을 제안해보세요

보내주신 공약은 후보자에게 제공되며, 우수 공약을 선정하여 사은품을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 참고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공약지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6월 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